

제주문화상징물의 가치와 문화콘텐츠화 방안

- 돌문화를 중심으로 -

강연실*

< 차례 >

- I. 서론
- II. 제주문화상징물의 가치
 - 1. 돌담
 - 2. 정낭
 - 3. 돌하르방
- III. 제주문화상징물의 문화콘텐츠화 방안
 - 1. 제주문화상징물의 의미
 - 2. 제주문화콘텐츠화의 의미
 - 3. 제주문화콘텐츠의 활용 방안
- IV. 결론

국문요약

제주문화유산은 오랜 세월 척박한 자연적·역사적 환경을 극복하며 만들어 낸 제주만의 것이다. 따라서 제주 혹은 제주인의 정체성 논의의 중심은 바로 제주문화일 것이다.

오늘날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로 문화가 자산이 되고 경쟁력이 되는 시대이다. 이 시대에 제주문화는 무한한 잠재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문화는 자연환경과 밀접한 상관성 속에 놓여 있으며, 제주의 자연환경은 돌로 상징화된다. 제주의 의식주를 비롯하여 신앙의 표상까지도 돌로 만들어진 것이 많아 제주는

* 제주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졸업

돌문화 하나만으로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셈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문화의 정신사적·문화사적인 본질적 의미를 찾고 제주사람들의 정체성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한국문화의 보편성 위에 제주문화의 특수성을 밝힘으로써 이 문화원형을 바탕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문화산업이 주도하는 21세기에 제주문화를 세계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제주문화의 정체성을 밝혀 줄 많은 제주문화상징물 중에서 제주10대 문화상징물로 선정된 ‘돌문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시키고자 하며, 그 중에서도 ‘돌담’, ‘정낭’, ‘돌하르방’으로 연구범위를 한정시킨다.

최근의 문화산업정책들은 문화원형을 발굴하고 문화콘텐츠를 연구하는 데에 소홀한 채, 산업화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제주문화콘텐츠산업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제주문화원형에 대한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주문화상징물의 문화콘텐츠화를 위해 이것들의 의미와 가치를 파악하고 스토리텔링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스토리텔링은 자연을 정복의 대상이 아닌 상생의 존재로 여기는 생태의식을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문화콘텐츠는 문화자료를 원천으로 한 콘텐츠를 의미하며 문화산업의 아이টেम्로 활용할 수 있는 단계로까지 나아간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돌담’, ‘정낭’, ‘돌하르방’의 의미와 가치를 밝히고, 각각의 문화상징물의 콘텐츠화 방안을 교육용 에듀테인먼트, 디지털 콘텐츠화, 스토리텔링, 캐릭터 개발, 관광자원으로의 활용 등의 측면에서 제시한다.

주제어 : 제주문화상징물, 돌담, 정낭, 돌하르방, 문화콘텐츠

I. 서론

제주의 독특한 문화유산은 오랜 세월 동안 척박한 자연환경과 역사적 환경을 극복하며 만들어낸 제주만의 것이다. 이것은 한반도의 다른 지

역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문화이다. 따라서 제주 혹은 제주인의 정체성 논의의 중심은 바로 제주문화일 것이다.

오늘날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로 문화가 자산이 되고 경쟁력이 되는 시대이다. 그리고 이 시대의 대표 화두는 전통문화의 세계화이다. 민족 문화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원형자질은 무한한 가치 창조 작업의 잠재적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처럼 문화가 자산이 되고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제주문화는 무한한 잠재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문화는 자연환경과 긴밀한 상관성 속에 놓여 있다. 제주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아름답고 보존가치가 큰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제주의 자연환경은 돌로 상징화된다. 돌로 뒤덮인 땅덩어리이기에 의식주를 비롯하여 신앙의 표상까지도 돌로 만들어진 것이 많다. 돌문화 하나만으로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셈이다. 그리고 이것이 문화산업으로 연결되었을 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산업의 기초가 될 문화원형을 발굴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지난 2006년 문화관광부에서는 한국민족문화 100대 상징물을, 2008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부가가치 창출이 우수한 것으로 10대 제주문화상징물을 각각 선정하였다. 이 중 제주문화상징물은 제주를 대표하는 상징물로서 제주문화를 세계화시킬 수 있는 매개이다. 따라서 제주문화상징물 선정 작업을 통해 학술적 고증과 분석, 이론적 지원과 천착 등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문화에 대한 관심과 함께 그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평가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물들은 많지 않은 편이다. ‘돌하르방’에 대한 연구는 과거 김영돈, 현용준에 의해 주도되었고, 그 핵심적 특성이 적절하게 지적되었다. 그러나 민속적 가치 이외의 문화적 활

용 방안에 대한 논의는 초보단계라 하겠다. 또한 ‘돌담’과 ‘정낭’의 가치는 높게 평가하면서도 이에 대해 학문적으로 접근한 연구물은 드물고, 역시 문화적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도 미미하다. 따라서 제주학 정립을 위해 우리 지역 문화를 다른 지역 문화와 비교 연구하여 차이점을 찾고 그 가치를 재조명함은 물론 전통문화의 문화콘텐츠화가 화두가 되고 있는 이때, 제주문화를 다각도로 활용하여 미래 지향적 문화산업의 대안을 정립하고자 한다.

II. 제주문화상징물의 가치

1. 돌담

1) 기원

돌담의 기원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에 대한 최초의 역사적 기록이 『동문감(東文鑑)』에 보이기 때문에 대략 800년 이전으로 본다. 『동문감(東文鑑)』에 “제주 밭이 예전에는 경계의 독이 없어 강하고 사나운 집에서 날마다 차츰차츰 먹어들어 가므로 백성들이 괴롭게 여겼다. 김구(金丘)가 판관이 되어 주민의 고통을 물어서 돌을 모아 담을 쌓아 경계를 만드니 주민이 편하게 여기는 것이 많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즉 고려시대 1234년(고종 21) 최초의 제주판관 김구가 밭과 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권세가의 토지 침탈을 방지하고자 돌담을 쌓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람과 돌이 많은 제주 자연 환경의 특징으로 보아 돌담은 집을 짓고 촌락을 형성하고 밭농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생겨났을 것이다. 단지 김구 판관이 제주에 부임했던 13세기 당시 김구

에 의해 계획적·대규모로 정리사업이 있었던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이라 추측한다.¹⁾

고려 고종년간(1213~1259) 김구가 판관으로 부임했을 당시 제주의 토호가 여전히 크게 발호했고, 이 토호들은 탐라를 고쳐 제주라 명명했다. 백성의 땅을 잠식하거나 경계를 넘어 세금을 거두는 등 폐해가 심하였다. 김구는 백성들을 위해 돌로 담을 쌓아 경계를 만들고, 경제적 편익을 도왔다. 김구가 돌담을 쌓아 경계를 만든 것은 기존의 토호 세력을 제압하려는 방식이었고, 밭두둑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서민 경제를 돌보고자 함이었다.²⁾ 이때 돌담이 처음 만들어졌다는 의미와는 다르게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바람을 막아 농사를 돌보고자 하는 돌담은 이보다 훨씬 이전에 시작되었을 것이다.

2) 종류 및 기능

돌담은 산과 밭, 주거 공간, 해안 등지에서 소유권 경계, 바람막이, 방어시설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축조되었다. 돌담은 쌓는 장소 및 방법이나 형태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기능 및 명칭도 다르다.

돌담에는 집담, 밭담, 올렛담, 원담, 산담, 통싯담, 잣백(담), 머들(돌) 등이 있다. 집담은 남태평양의 태풍과 강한 바람으로부터 집을 보호하기 위해 집의 울타리에 쌓은 돌담이다. 또한 밭담은 마소의 출입을 막고 바람막이 구실을 하여 농작물을 보호하는 역할도 했다.

1) 김종석, 『제주도 전통사회의 돌문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28쪽.

2) 김석익, 『탐라기년』, 제주도 교육위원회, 1976, 355쪽. 高宗幾年 時改耽羅爲濟州 置副使判官 土俗無疆畔 强暴之家 日以蠶食百姓苦之 時判官金坵 問民疾苦 聚石築垣爲界民多便之

올렛담은 큰길에서 집으로 출입하기 위한 골목에 쌓은 담으로 안과 밖을 구분하면서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즉 외부로부터의 시선을 차단해서 독립된 공간을 가지려는 경계성 및 영역성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원진은 『탐라지』 ‘풍속’조에 “밭머리에 무덤을 만든다³⁾”라며 제주 무덤의 특이성을 기록하고 있다. 무덤을 제주에서는 ‘산’이라 하고, 무덤을 에워 쌓은 돌담을 ‘산담’ 또는 ‘산갓’이라 한다. 제주의 돌문화를 삶의 문화와 죽음의 문화로 나누어 보면, 집담, 올렛담, 밭담 등은 삶의 실생활과 밀접한 돌문화라 할 수 있다. 반면, 산담은 죽음의 문화를 대변하며 이를 통해 제주인들의 죽음에 대한 의식과 관념형태, 철학관을 엿볼 수 있다.⁴⁾

‘갓백(담)’은 잔 돌멩이나 자갈로 성담처럼 넓고 기다랗게 마주 덧붙여 쌓아 올린 돌담을, ‘머들’은 밭의 한가운데에 방사담처럼 모아 놓은 돌을 말한다.

제주인들은 밀물에 따라 몰려든 고기떼들이 썰물이 나갈 때 빠져나갈 수 없도록 바다에도 돌담을 쌓았는데 이를 ‘원담’이라 한다. 돌그물 원은 제주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한반도는 물론 일본의 큐슈(九州) 및 오키나와(沖縄) 등 제주도 인근의 문화집단에도 존재한다.

그러나 제주의 원담은 그것들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한반도에서는 그 담을 돌 또는 대나무나 갈대를 엮어 만들었지만 제주에서는 돌로만 견고하게 쌓아 만들었다. 둘째, 한반도 본토의 것은 개인 소유였으나, 제주의 원담은 축조 및 보수, 작업까지 같이 한 공동어로

3) 이원진, 『耽羅誌』 ‘風俗’條, 田頭起墳

4) 김유정·손명철, 『제주의 민속문화② 제주의 무덤』, 국립민속박물관, 2007, 87~88쪽.

작업장이었다.⁵⁾

잣성 혹은 잣담은 방목 중인 말들이 농경지로 내려와 입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쌓은 돌담으로 수탈의 역사가 점철된 곳이면서 고난의 역사를 이겨낸 삶의 현장이다. 방목중인 마소가 농경지 안에 들어가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해 쌓기도 했지만, 곳자왈 및 방목지에 대한 개간을 금지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목마장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한다. 또한 제주말은 조선시대에 탐관오리가 수탈의 대상으로 삼았던 가축이다. 따라서 잣성은 권력을 이용해 중산간 지대를 지배했던 역사를 대변하며, 제주의 전통 목축문화를 입증하는 유물경관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⁶⁾

한편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바닷가를 둘러쌓았는데, 둘레가 3백여 리이다. 고려 원종 때에 삼별초가 반하여 진도에 웅거하자 왕이 시랑(侍郎) 고여림 등을 탐라에 보내 군사 1천명을 거느리고 방어하면서 이 성을 쌓게 했다”고 기록⁷⁾돼 있다. 고려 정부군이 환해장성을 처음 쌓기 시작했으나, 삼별초가 여몽(麗蒙) 연합군의 상륙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쌓았으며, 조선 후기 헌종 11년(1845년)까지도 외부의 침입 등에 대비해 보수·축조된다. 따라서 환해장성은 어느 한 시기에 완성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고려 말부터 조선 후기까지 6백여년 동안 역사를 이어오면서 바다를 통해 침입하는 외적을 방어하기 위한 군사적 목적의 성으로서 의의가 있다.

항과두성은 고려 항몽(抗蒙)전쟁의 마지막 전쟁터로 13세기 후반 역

5) 제주도, 『제주민속유적』, 제주도, 1997, 30쪽.

6) 송시대 외, 『제주의 민속문화④ 제주의 곳자왈』, 국립민속박물관, 2007, 76~83쪽.

7) 조선사학회 편, 『신증동국여지승람』제3권, 『한국지리풍속총서』, 경인문화사, 2005, 211쪽. 沿海環築 周三百餘里 高麗元宗時 三別抄叛據珍島 王遣侍郎高汝林等于耽羅 領兵一千以備之 因築長城

사의 중심 무대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향파두성을 근거지로 한 삼별초 항전으로 몽골의 일본 정벌은 늦춰졌으며, '1270년대'라는 시대적·역사적 성격을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성곽사적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보통의 성곽은 장기간에 걸쳐 축조되므로 시대적 성격이 모호해지기 쉽지만, 향파두성은 단기간에 걸쳐 특히 고려의 지배층 세력에 의해 주도적으로 만들어졌다. 또한 향파두성은 단순한 방어용 성곽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도성(都城)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⁸⁾

돌담의 용도는 첫째, 바람 많은 자연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풍의 기능을 우선 들 수 있다. 제주도의 올레가 직선이 아닌 곡선을 이루고 있는 것도 바람을 완화시키기 위함이었으며, 발담은 화산회토의 뜬 밭의 흙이 날려 그것이 유실되는 것을 막기도 한다. 둘째, 방목(放牧)과 관련되는 것으로 마소의 침입을 막는데 있다. 셋째, 경계를 확정함으로써 세력가의 토지 잠식을 막아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어 민심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넷째로 돌을 제거, 정리함으로써 경지면적의 확대를 들 수 있으며, 다섯째는 작업능률의 향상이다. 마지막으로 주변에 흩어진 돌들을 제거하고 돌담을 쌓음으로써 섬 고유의 문화경관을 형성한다.⁹⁾

3) 문화사적 가치

화산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제주는 검은 현무암이 땅은 물론 바다에

8) 고광민, 『제주의 돌문화』, 제주돌문화공원, 2006, 98쪽.

9) 김종양, 『제주도 전통사회의 돌(石)문화-생활용구, 방어시설 및 사회적 기능체로서의 용도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28쪽.

까지 널리 있어 이렇게 돌밭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그것과 싸워 나가며 이뤄낸 것 중 하나가 제주의 대표적 경관을 형성하는 돌담이다.

돌담은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것은 아니다. 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한반도 본토의 돌담은 대개가 토석(土石)담으로 일정한 크기의 돌 또는 기와와 흙, 짚 등을 사용하여 쌓지만, 제주의 돌담은 오로지 돌로만 쌓는다는 점이 다르다.

일본의 오키나와에는 이시가키¹⁰⁾라는 섬이 있다. 이 섬의 이름은 섬 내의 집들이 태풍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돌담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에서 유래한다고 전해지고 있다.¹¹⁾ 또한 몽골 유목민들은 수십 도가 넘는 영하의 겨울 추위에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서 겨울이 오기 전 ‘월찌’라는 돌담을 쌓는다.¹²⁾

이처럼 다른 지역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돌담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에서와 같이 전 지역에 걸쳐 이루어진 돌담은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 제주의 돌담은 돌담을 쌓는 장소 혹은 기능, 형태에 따른 다양한 분화 형태가 있다는 점이다. 셋째, 과거로부터 돌을 이용한 돌담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생활문화유산이다. 넷째, 제주도 돌담을 ‘바람그물’이라고 한다. 치밀하게는 쌓되 자세히 보면 구멍이 뚫려 있다. 틈새를 주지 않고 완벽하게 쌓으면 거친 바람에 언젠가 돌담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돌을 쌓으면서도 조금씩 바람이 빠져 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돌담의 가치로서 첫째, 역동적 조형미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10) 이시가키(いしがき, 石垣)는 ‘돌담’이란 뜻이다. 오키나와 본섬의 나하에서 약 420킬로 남서쪽에 있는 아에야마 제도의 중심 섬이다.

11) 일본국제관광진흥기구 사이트 <http://www.jnto.go.jp>

12) 김유정, 김유정의 문화코드읽기, <돌담, 삶은 기록보다 앞선다>, 제민일보 2007. 4. 5.

산담은 앞쪽에서 보면, 뒷변이 밑변보다 조금 앞으로 내밀 듯 나와 있다. 이는 삼각형의 뱃머리와도 같은 인상으로 앞으로 쓰러져 있으면서도 언제라도 날아갈 것 같은 역동적인 조형미를 준다.¹³⁾

둘째, 공동체 의식이 바탕에 깔려 있음을 들 수 있다. 제주의 전통적인 방식에 의해 쌓은 돌담은 개인의 힘으로 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오랜 세월동안 이루어진 것이다. 게다가 돌담을 쌓는 데 필요하지 않은 돌이란 없다.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돌이 조화를 이루어서 돌담이 형성되는 것처럼 제주인의 삶 역시 다른 사람들과의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었다.

셋째, 돌담은 미적 가치와 함께 종교적 신성성 및 숭고미를 가지고 있다. ‘당 5백, 절 5백’이란 말이 생길 정도로 제주에는 마을마다 돌담으로 세운 ‘신궁(神宮)’이라 할 수 있는 당이 있으며, 마을제를 지내는 포제(醮祭)터와 포제단(醮祭壇)도 돌담으로 꾸몄다. 이처럼 당(또는 당굿), 포제가 거행되는 돌담 안의 신성공간은 마을 공동체의 동심결이 되기도 하여, 제주의 돌담은 돌로 쌓은 담 이상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¹⁴⁾

넷째, 제주 돌담은 자연과의 친연성이 높다. 돌담은 모두 제주의 화산석으로 만들었지만 지질적 환경의 차이로 지역마다 약간씩 다른 특성을 보인다. 때문에 제주의 풍토적 재료를 사용해 돌담을 만든다는 점에서 돌담은 자연과의 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돌담은 미학적·문화적 요소의 하나로서 제주만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오늘날 제주도내에서는 과거의 전통적인 돌담이 많이 사라지는 한편 변형되고 있다. 이처럼 전통적인 돌담 형식을 잃어간다는 것은 제주의 미적 요소를 잃어가는 과정이라 하겠다.

13) 김유정·손명철, 앞의 책, 115쪽.

14) 고시홍, 『돌담』, 『濟州學』 제2호 겨울, 제주학연구소, 세림, 1998, 10~11쪽.

4) 현황 및 보존 방안

제주의 돌담은 기능 및 특성상 세계적으로 독특하고 희귀한 문화유산으로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100대 민족문화상징 중 하나이지만 무한한 잠재적 가치와 실질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경제발전 속에서 훼손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돌담이 훼손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그 중에서도 자연적인 요인보다 인위적 요인이 많다. 비닐하우스 등의 새로운 경작형태 및 도로 등의 시설물 개발, 기타 신축 및 돌담을 시멘트 등 다른 재료로 대체하면서 훼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7년 제31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라산, 성산일출봉, 거문오름 용암동굴계가 ‘제주화산섬과 용암 동굴(Jeju Volcanic Island and Lava Tubes)’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세계유산은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협약’에 따라 지정한 유산으로 인류문명과 자연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산으로 전 인류가 공동으로 보존하고 이를 후손에게 전수해야 할 세계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진 유산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orld Heritage Committee)는 필리핀의 코르디레라스 다랭이논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코르디레라스 다랭이논은 “2000년 동안 높은 산간에서 벼농사의 등고선 경작을 해 오는 곳으로 이곳의 논둑을 이어 놓으면 2만km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지구 반 바퀴 둘레와 같은 길이다. 또한 농업지식과 신성한 전통, 섬세한 사회적 균형의 결과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계속 전승되었고 인간과 환경과의 정복과 보존의 조화로움이 표현된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세계유산 중 문화유산으로 지정”¹⁵⁾

15)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이트 <http://www.unesco.or.kr>

하였다.

제주 발담의 길이는 22,000km¹⁶⁾로 만리장성(4,000km)에 비해 5배이며, 다랭이논의 길이에 필적할 만하다. 그렇다면 제주의 돌담 역시 다랭이논과 비슷한 이유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한편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필리핀의 라이스테라스는 최근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다. 즉 최대 쌀 생산지였던 농업을 포기하고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필리핀 정부의 정책 때문에 라이스테라스는 농사를 짓는 삶의 터전이라기보다는 점점 관광 상품화되어 외관유지에 힘쓰고 있지만, 문화경관의 훼손은 가속화되고 있다.¹⁷⁾ 이는 주민들의 삶이 전제되지 않은 보존이기에 나타난 당연한 결과이다.

제주의 돌담은 화산섬인 제주에서 바람과 땅을 돌로 다스려온 제주인의 생활문화유산이다. 그리고 생활문화유산으로서 돌담 안에 발작물을 재배하고 살아가는 농민들의 지속적인 삶¹⁸⁾이 전제되어야만 그 돌담 유산도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보존 가능하며 세계문화유산이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관 보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농촌의 삶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농촌의 삶이 지속되고 살아 있어야 제주의 문화 정체성이 온전하게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예산 배정 및 마을 자치회 등의 자발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즉 보존가치가 높은 농촌경관자원의 관리

16) 고성보, 『제주발담의 평가시스템 구축과 경관가치 평가』, 『제주돌담의 역사·문화적 고찰과 평가시스템 구축방안 세미나(2008. 5. 14.)』자료집, 19쪽.

17) 『W』, MBC, 2008. 4. 25.

18) 농업은 국가전략이어야 한다. 최근 곡물 가격 상승을 보더라도 식량산업이 국가를 지탱하는 제1요소를 실감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농업은 계속되어야 할 중요 산업이고, 아울러 전통 계승의 방식이기도 하다.

및 보전을 위한 정책적 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돌담 경관보전을 위해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밭담의 경관보전 직불제 도입 방안’¹⁹⁾ 등 제도적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2. 정낭

1) 기원

정낭이 언제부터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단순히 이루어진 것은 아닌 듯하다. 하지만 긴 나무막대기를 가로로 걸쳐 놓아 대문 역할을 했던 것은 한라산의 방목중인 마소를 가두어 기르기 위한 ‘살채기’라는 ‘야외의 문’에서 비롯된 풍속인 것 같다.²⁰⁾ 따라서 ‘정낭’은 방목 중인 마소의 침입을 막기 위해 집의 입구에 정주목을 세우고 나무막대기를 걸쳐게 된 것이다.

제주도에는 말과 소를 방목해 온 전통이 있다. 따라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마소로부터 마당에 넘어 건조시키는 곡식이나 우영에 심은 채소를 보호하기 위해 정주목에 정낭을 걸쳐 놓았다.

‘정주목’과 ‘정낭’을 통틀어 ‘정’이라 한다. 현재 제주도에 남아 있는 정주목은 대개 돌로 만들어진 것들이지만, 원래는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래서 ‘정주목’이라고도 한다. 정주목은 대개 길이 90cm, 두께 10cm, 너비 18cm의 나무기둥에다 나무막대기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구멍을 서너 개 뚫어 만든 것이다.

19) 고성보, 앞의 글, 19쪽.

20) 복제주군문화공보실, 『내고장 傳統文化的 뿌리』, 1982, 161~163쪽.

2) 명칭

‘정낭’의 명칭 문제이다. 제주 문화를 논하는 가운데 같은 것을 말하는 데도 서로 다른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일화할 필요성이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제주의 대문 역할을 하는 것과 관련된 단어로 정낭, 정살, 정주목, 정주석, 정주먹, 정주살, 정 등이 있다.

‘정주목’은 제주에서 집 입구인 ‘올레목’에 긴 나무막대기를 가로로 걸쳐 놓을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 양쪽으로 세운 기둥이다. ‘정주목’이란 명칭은 넓고 곧은 직사각의 나무에 구멍을 내고 받침돌 위에 고정하여 올담 한 가장자리에 설치한 나무라는 한자어에서 온 듯하다. 그리고 ‘정주목’에 가로로 나무를 걸쳐 놓았는데 이를 ‘정낭’ 혹은 ‘정살’이라 한다. 그러나 ‘정주목’은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래 가지 않아 대신 돌로 이것을 만들었다. 이름은 ‘정주목’으로 변함이 없었지만 ‘정주석’이라 이름을 바꾼 것은 고물상들의 명명이었다고 한다.²¹⁾ ‘정’은 ‘정주목’ 혹은 ‘정주석’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또한 ‘정주먹’은 ‘정주목’을 부르는 다른 이름이다. ‘정주살’은 ‘정낭’을 다른 이름으로 ‘정살’이라 부르는데 이를 걸쳐 놓은 기둥이라는 점에서 ‘정주살’이라 부른다.

제주에서 사람이 있고 없음을 나타내는 기둥을 ‘정주목’이라 하고, 그 기둥에 걸쳐 놓는 나무막대기를 ‘정낭’, 이 둘을 합쳐 ‘정’이라 하면 될 것이다. 대신 제주에서 대문 역할을 하던 것을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정낭’을 사용하면 될 것이다.

21) 현용준,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2003, 130~131쪽.

3) 기능 및 의미

제주에는 집안의 여러 곳을 관장하는 신에 대한 신앙이 있는데 이를 가신신앙이라 한다. 이러한 제주 지역의 가신은 무속(巫俗)에서 유래했다. 그 유래는 무속신화인 <문전 본풀이>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문전 본풀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산고을 <남선비>와 여산고을 <여산부인>이 부부가 되어 아들 일곱 형제를 낳고 살았다. 집이 매우 가난하므로 부인의 권유에 따라 <남선비>는 배를 타고 쌀장사를 나갔다. 바람 따라 물결 따라 가는 것이 배는 <오동나라 오동고을>에 닿았다. 그 고을의 간교한 여인 <노일제테 귀일의 딸>은 이 소식을 듣고 갖은 아양으로 <남선비>를 꼬여 부부가 되고, 가지고 간 돈을 다 털어먹고 남편을 학대한다. <남선비>는 형편없는 초막에서 거죽을 먹으며 살다 보니 눈마저 어두워졌다.

기다리다 치친 본처 <여산부인>은 남편을 찾아 나섰다. 배는 오동나라에 닿아 남편을 찾아갔으나 남편은 본처를 알아보지 못했다. 본처는 쌀밥을 하여 남편에게 대접하고, 본처임을 알렸다. 이를 본 첩인 <귀일의 딸>은 시기 끝에 본처를 꼬여 목욕하러 가고는 물에 밀어 넣어 죽여 버리고, 본처인 양하여 남편과 같이 고향에 돌아왔다. 부모를 맞은 일곱 형제는 어머니가 아무래도 친어머니 같지가 않아 한다. 이를 눈치 챈 계모는 아들 일곱 형제를 죽여 버릴 흉계를 꾸며 배가 아파 죽겠다고 뒹굴며 남편더러 점 쳐 오라고 했다. 남편이 점을 치러 나가자, 지름길로 먼저 간 첩은 점쟁이인 체하고 앉아 아들 일곱 형제의 간을 내어 먹어야 낫겠다고 점괘를 내렸다. 아버지는 아들들의 간을 내려고 칼을 가는데, 푹푹하고 역력한 막내 아들이 이를 알고, 그 칼로 형들의 간을 내어 오겠다고 형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서 멧돼지 새끼 간 여섯 개를 내어 와 계모에게 드렸다. 먹는 척하며 자리 밑으로 숨기는 계모를 문틈으로 본 막내아들은 그 간계를 만천하에 공개했다. 음모가 드러난 계모는 변소로 도망가 목매어 죽어 변소신이 되고, 체면 없는 아버지는 도망가다 <정낭>에 목 걸려 죽어 <정주목·정살

지신>이 되었다. 이들은 서천꽃밭에 가서 환생꽃을 얻어다 죽은 어머니를 살리고 부엌의 신 <조왕>으로 앉히고, 위로 다섯 형제는 집안을 五方에서 지키는 五方土神이 되고, 여섯째는 뒷문의 신인 <뒷문전>이 되고, 똑똑한 막내동생은 <상방>의 앞문신인 <일문전>이 되었다.²²⁾

제주도에는 거릿길에서 집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긴 골목이 있다. 이를 ‘올레’라고 한다. 올레에서 집 마당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문이 있거나 그 대신 구멍이 나 있는 돌을 세워두기도 했다. 그리고 그 구멍에 나무막대기를 걸쳐 두었는데 이는 마소의 출입을 방지함은 물론 집에 사람이 있고 없음을 표시해 주기도 했다.

이처럼 정주목에 정낭을 걸쳐 두었기 때문에 마소는 물론 사람이 함부로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집주인은 마음 놓고 바깥일을 볼 수 있었다. 제주인들에게 있어 집을 지켜 주는 것은 오직 ‘정주목’과 ‘정낭’이다. 이러한 정주목은 그 집의 수호신적인 영험이 있어 민간신앙에서는 이를 ‘올레직이(入口守護神)’라 부르며, 무속신화(巫俗神話)에서는 ‘남선비의 뉘’이라고 이른다.

남선비는 주먹직이(올레 양쪽의 「柱木직이」神) 나무목신 들어사고²³⁾

아버님은 정쌀에 걸려 죽어시니 올레 주목 정쌀지신(柱木과 정쌀지신)으로 들어사곡²⁴⁾

그리고는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아직도 조상의 제사를 지낸 후 ‘걸

22) 현용준,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2002, 261쪽.

23)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201쪽.

24) 현용준·현승환, 『제주도 무가』,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96, 278쪽.

명²⁵⁾이라 하여 잡식(雜食)을 만들고 이 정주목에 대접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²⁶⁾으로 보아 정낭은 단순히 이루어진 것은 아닌 듯 하다.

4) 문화사적 가치

정낭의 문화사적 가치를 실용적·과학적·정신사적·미학적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제주 전통 가옥의 세거리, 네거리 집에는 내문(內門)이 별도로 있으나, 대부분의 가옥에는 문이 잘 발달하지 않았다. 그것은 나무로 만든 대문은 고온다습한 자연적 조건으로 쉽게 썩었을 것이고, 강한 바람으로 쉽게 부서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거릿길에서 집 입구까지 올레가 있으며 올레에는 돌담을 쌓았다. 그래서 만약 대문이 바람에 쓰러지고 부서진다면 올렛담까지 무너지기 때문에 바람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 있는 정낭이 더 실용적이었을 것이다.

둘째, 정낭의 과학적 측면이다. 정낭이 세 개 중 하나만 걸쳐져 있으며 집주인이 없으나 이웃에 잠깐 외출중이나 곧 돌아올 것이라는 의미이며, 두 개 걸쳐져 있으면 이웃에 외출중이나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 또한 정낭이 세 개 걸쳐져 있다면 먼 곳에 외출중이며, 하나도 걸쳐져 있지 않으면 사람이 있다는 정보를 표시해 주는 것이다. 이처럼 정낭은 걸쳐진 나뭇가지에 따라 집주인의 부재를 표시해 주는 표현 수단이다. 정주목에 걸쳐진 정낭의 개수 정낭 세 개는 디지털 2진 3비트로 정낭의 통신 시스템이 디지털 통신의 효시가 된다고

25) '결명'이란 제사가 끝난 뒤 선령에게 올렸던 제물을 송충물에 조금씩 떼어 넣어 지붕이나 올레 어귀담에 던지는 잡식(雜食)을 말한다.

26) 진성기, 『제주민속의 아름다움-그 오묘한 빛과 향기』, 제주민속연구소, 디딤돌, 2003, 146~147쪽.

보기도 한다.²⁷⁾

이처럼 처음에는 마소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설치했던 정낭이 나중에는 집주인의 부재까지 표시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정보 표현 측면에서 간결하면서도 과학적이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셋째, 정신사적 측면에서 보면 제주사람의 집이라는 '신성공간'에 대한 믿음이 정낭에 나타나 있다. 제주에는 가신신앙이 있어 집의 울타리 안의 여러 곳을 관장하는 신이 집을 지켜준다고 믿는다. 제주 전통 가옥의 구조상 정낭은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통과해야 하는 곳이다. 때문에 정낭에 깃들여 있는 정주목신이 가장 먼저 외부인 혹은 사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낭은 단순한 실용물이 아니라 신이 깃들여 있는 상징물이라 할 수 있다. 집을 지키고자 하는 믿음은 바로 정낭에 깃든 신이 집을 지켜 준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한편 제주의 독특한 주거문화 요소 중 하나인 정낭은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최근 정낭과 같은 대문이 시베리아 사하공화국과 스리랑카 및 캄보디아, 태국 등지에서도 있음이 확인되어 주목할 만하다.

우리에게 문화사적으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같은 황색인이며 검은 머리, 검은 눈에 풍습조차 같은 게 많다. 수호신 솟대와 장승, 서낭당과 제주 도식 정낭, 그리고 어느 아이들이나 몽고반점이 있다.²⁸⁾

사하족은 우리와 같은 몽골리언으로 알타이어군의 동북 터키어계가

27) 이문호, 「디지털 통신 효시로서의 정낭통신 시스템」, 『정보통신』 10호, 한국통신학회, 1993.

28) 주장현, 「시베리아 레나강과 사하족」, 『세계의 켈트 여행지』, 경향신문, 2007. 3. 15.

다. 사하족은 유목 문화권으로서 과거 제주와 같이 말을 목축하였다. 또한 스리랑카의 타밀지역 역시 정낭과 비슷한 민가의 대문이 있다. 양쪽에 통나무를 세우고 가로로 나무막대기를 걸쳐 놓은 모습이 정낭과 비슷하다. 이외에도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대만에도 정낭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이 있다.²⁹⁾ 그렇다면 정낭은 제주도 고유의 것이라기보다는 북방문화 및 남방문화에도 존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동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아시아 해양문화 교류의 증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남방문화의 해양 교류에 대한 고찰이 계속 이루어질 때 제주 문화의 속성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쿠로시오 해류 문화권과의 비교 연구가 절실하다.

3. 돌하르방

1) 기원 및 특징

돌하르방의 기원 및 유래에 관한 확실한 근거는 없으며, 관련학자들이 북방·남방문화 기원설, 본토 장승의 유입설, 제주도 자생설이라는 여러 견해들을 추측으로만 논하고 있다.

이 석상들은 과거 주현성(州縣城) 소재지인 제주시가, 대정읍 보성·인성·안성, 표선면 성읍 세 군데에 모두 47기가 남겨져 있다. 담수계(淡水契)에서 펴낸 <탐라지(耽羅誌)>에 따르면 돌하르방을 ‘웅중석’이라 하고 제주읍성의 돌하르방은 1754년(영조 30년) 김몽규 목사가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다.

29) KBS, 『역사기행』, 2007. 2. 25.

翁仲石-濟州邑城 東西南 3門外에 在하였고 4087년 甲戌 英宗³⁰⁾ 30년에 牧使 金夢奎가 創建한 바인데 3門 毀撤에 因하여 2座는 觀德亭 前 2座는 三姓祠 入口에 移置되었다.³¹⁾

防禦使 金夢奎-英祖 28年 壬申 2월에 到任하고 越 2年 甲戌 10월에 誕日에 箋文陳賀未及事로 因하여 巡營으로부터 杖罷하다. 翁仲石을 三門城外에 建하고 運籌堂과 觀德亭을 重創하다. 立碑³²⁾

『담라기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甲戌 30年 清乾隆 19年 金夢奎設 翁仲石於城門外

물론 이 기록만으로는 돌하르방이 18세기 김몽규 목사에 의해 비로소 제주에 세워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에 대해 현용준은 기석의 구조를 토대로 조선조 영조 30년으로 추측한다.³³⁾ 돌하르방은 성문 밖에 쌍으로 세워져 있었는데, 돌하르방 중 기석이 남아 있는 것들을 살펴 보면 한쪽은 口形, 다른 한쪽은 기억자를 뒤집어 놓은 모양의 홈이 패여 있는데 이는 정낭을 걸쳤던 흔적이라고 한다. 즉 성문 양쪽에 돌하르방이 세워지기 전에는 정주목을 세우고 정낭을 걸친 시설이 되어 있었다가 성문이 생기고 돌하르방이 세워진 다음에도 그 기능만은 남아 있어서 기석에 홈이 생겼으리라고 보는 것이다.³⁴⁾

또한 김영돈은 그것에 관한 문헌자료 및 전설 등 구비 전승되는 이야

30) ‘英祖’의 오기로 보인다.

31) 淡水契編, 증보<耽羅誌>, 제주문화원, 2004, 86쪽.

32) 淡水契編, 위의 책, 405쪽.

33) 현용준, 『제주석상 ‘우석목(돌하르방)’考』,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2002, 257쪽.

34) 현용준, 『제주석상 ‘우석목(돌하르방)’考』, 위의 책, 259~260쪽.

기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18세기에 세워졌다는 기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문을 제기한다.

담수계편에서 펴낸 <탐라지>에 따르면, 돌하르방을 응중석(翁仲石)이라 하고 제주읍성의 돌하르방은 1754년(영조 30년) 김몽규 목사가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만으로는 1754년에 돌하르방이 비로소 제주도에 세워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행정구역이 제주목, 대정현, 정의현으로 나뉜 것이 1416년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각각 성을 쌓았는데, 3백여 년간 성문에 아무런 시설이 없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³⁵⁾

따라서 성의 축조 연대와 관련지어 보면 제주 석상의 유래는 15세기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본다.

돌하르방은 제주도 행정 구역이 삼분(三分)하였던 약 500년(1416~1914년)동안 제주목·대정현·정의현 도읍지의 동·서·남 성문 옹성구비에 쌍쌍이 세워졌었다. 제주목에는 23기³⁶⁾, 대정현과 정의현에 각각 12기로 모두 47기가 남아 있다.³⁷⁾ 이들 돌하르방의 전체적인 형태는 부리부리한 큰 눈에 큼지막한 코, 머리에는 병거지를 썼고 두 손은 배에

35) 김영돈, 『돌하르방』, 『제주성읍마을』, 78쪽.

36) 돌하르방에 관한 초기 연구에 따르면 제주목의 돌하르방은 모두 25기이다. “조선조 世宗 때 창건했다는 觀德亭 앞에 4座, 그 뒤에 2座, 三姓始祖 湧出地라는 三姓祠 앞길(舊 濟州女中·高 앞)에 2座, 三姓祠 입구 길에 4座, 南門路 만수당약방 앞 우물통 골목에 1座, 동문로터리 명승호텔 앞(前 三泉書堂 북측 입구와 남측 입구)에 도합 4座(그 중 2座는 제주대학교 교정으로 옮겼음), 東門路 현 감리교회 뒤편 小路에 8座 도합 25座가 있었다.” (현용준, 『제주석상 ‘우석목(돌하르방)’考』, 앞의 책, 254쪽.)

37) 濟州牧 東·西·南門 옹성구비에 각각 4기씩 마주하여 8기씩 서 있었다. 그리고 大靜縣·旌義縣 東·西·南門 입구에 2기씩 마주하여 4기씩 각각 12기가 서 있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돌하르방의 전체 수가 47기였는지 의심스럽다.

나란히 해서 위엄 있게 서 있는 모습을 하고 있어 비슷하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각 고을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각각의 모습 및 크기도 다르다. 제주목의 것이 가장 커서 평균 신장 181.6cm, 정의현의 것은 141.4cm, 대정현의 것은 136.2cm이다.³⁸⁾ 삼현의 돌하르방의 크기가 다른 것은 목(牧)과 현(縣)의 차이를 감안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확실한 근거가 없다.³⁹⁾

현재 남아 있는 돌하르방은 모두 병거지를 쓰고 있으나, 모습과 크기에서 모두 다르며, 또한 일부는 기석이 있는 것이 있어 특징적이다. 만약 이것이 가로로 나무를 걸쳤던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마소의 침입을 막고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했던 ‘정낭’과 비슷한 반면, 정낭이 여러 개의 나무를 위아래로 걸쳐 놓음으로써 출입 차단의 기능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지면에 닿을 정도로 나무 하나만 걸쳐 놓는 것이어서 차단 기능이 있었겠는가 하는 문제도 제시한다. 그러면서 본래는 이것이 정낭과 같이 실용적인 역할을 하던 것이었지만 뒤에 그 잔재만 남은 것이라 보고 있다.⁴⁰⁾

2) 명칭

제주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이 석상은 ‘돌하르방’이라는 공식적인 명칭으로 불리기 이전까지 우석목(偶石木), 무석목(無石木), 벽수머리, 돌하르방, 돌영감, 수문장(守門將), 장군석(將軍石), 동자석(童子石), 옹중석(翁仲石) 등 재래의 명칭은 다양하나, 가장 흔한 명칭은 ‘우석목’, ‘무

38) 김영돈, 『濟州·大靜·旌義 州縣城 石像』, 『한국문화인류학』 5집, 39쪽.

39) 김봉옥, 『제주통사』, 제주문화, 1987, 164쪽.

40) 현용준, 『제주석상 ‘우석목(돌하르방)’考』, 앞의 책, 259~260쪽.

석목, ‘벽수머리’, ‘돌하르방’이다. 뿐만 아니라, 제주목·대정현·정의현에서 불리는 명칭이 각기 달라 제주도 전반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다 이것을 1971년 제주도 지방민속자료 제2호로 지정하면서 ‘돌하르방’이라는 공식적인 명칭이 붙여지게 되었으나 이는 재래의 명칭은 아니다.

‘우석목⁴¹⁾’은 가장 많이 통용되던 재래 명칭으로 현용준은 이것이 고유 명칭이었을 것이라 추측한다. 이를 한자어 ‘우석(偶石)’과 ‘목(木)’의 합성으로 보고 석제(石製)인 우상(偶像)에 ‘木’이 붙은 이유를 설명한다. 즉 이 석상의 본래적 구조나 기능이 ‘정주목’이거나 이와 유사한 것이라 추단하고 그러던 것이 후에 석상으로 만들게 되고 이를 ‘우석(偶石)’이라 불렀겠지만 본래의 ‘정주목’의 의미를 표현하려는 언중심리 때문에 ‘목’을 ‘우석(偶石)’에 붙였을 것⁴²⁾이라 한다.

‘무석목’은 대정·정의 고을에서, ‘벽수머리’는 정의 고을에서만 쓰이던 이름으로 ‘무석목’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이름이다. 또한 돌하르방은 어디서나 널리 통용되는 명칭이지만 해방 후에 생겨난 속칭에 불과하다.

이 중 ‘벽수머리’라는 명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벽수’는 영호남 지방에서 ‘장승’을 이르던 말이므로 ‘벽수머리’라는 명칭은 ‘돌하

41) ‘돌하르방’의 다른 명칭에 대해 ‘우석목’, ‘우성목’, ‘무석목’, ‘무성목’을 말하기도 한다. 진성기(『제주민속의 아름다움-그 오묘한 빛과 향기』, 제주민속연구소, 2003, 208쪽.)는 ‘우성목’이라 부르는 것은 이 석상을 원래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나무로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세워 신앙했던 옛 사람들의 ‘목우(木偶)’신앙에서 연유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성목’으로 불리는 것은 ‘無聲木’이라는 한자어로 풀이하여 볼 수 있다는 데서 이는 그 소리가 있고 없음을 두고 명명한 것이 아닌가 추측한다. 그러나 ‘우성목’과 ‘무성목’은 ‘우석목’과 ‘무석목’의 발음 차이로 생겨난 것일 뿐이다.

42) 현용준, 『제주석상 ‘우석목(돌하르방)’考』, 앞의 책, 253~254쪽.

르방'의 유래를 시사해 주기 때문이다. 즉 북방문화 기원설, 남방문화 기원설, 제주자생설 등 돌하르방의 유래에 관해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돌하르방을 한반도 본토의 '장승'이 유입, 변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단서를 '벽수머리'라는 명칭이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3) 기능

원시종교 혹은 토속신앙에 있어서 자연석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돌은 대지가 만들어낸 것으로서 영속적인 시간성과 부패하지 않는 힘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초월적인 능력이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이러한 암석송배는 고대로부터 계승되어 오는 관습으로 초자연적 영역과의 관계에서 당대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격과 기능을 가졌던 것이다. 이렇게 자연석도 인간의 신앙적 주술대상물로 삼아 신성시했다.

첫째, 수호신적 기능으로서 마치 성문을 수호하듯 주현성(州縣城) 소재지의 무사(無事)를 엄숙히 지키는 기능을 지녔다는 것이다. 문지기 노릇을 한다든가 수위·방어의 노릇을 한다든가, 묘소의 동자석과 같은 기능을 한다든가, 수호신격이라든가 하는 견해는 모두 돌하르방이 수호신적 기능이 있음을 말해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둘째, 주술종교적 기능으로서 흔히 '거오기'라 불리는 방사탑과 비슷한 기능이 있어 방사(防邪)·축사(逐邪)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특히 성읍리가 어떠한 전란의 피해도 입은 일이 없다는 점⁴³⁾과 대정현성에서는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 석상의 코를 쪼아 이 가루를 물에 타 마시면 아이를 잉태할

43) 성읍이 원래 '兵火不入之地'라는 이유와 함께 이 석상이 세워져 있음으로 인해 사기(邪氣)를 방어·축출하기 때문이며, 또한 성읍리 가까이까지 만연하던 호열자 같은 질병도 침범했던 일이 없었기 때문이라 믿고 있다.

수 있다는 속신, 대정현성 북문에 원래 석상이 있었는데 이를 다른 곳으로 옮겼더니 성내(城內)에 도둑이 많아졌다는 말도 있다. 셋째, 위치 표시 및 금표(禁標)로서의 기능이 있다. 석상은 주현성(州縣城) 성곽의 동서남북 성문 밖마다 웅성이 굽이쳐 나간 자리 양옆에 마주하게 세움으로써 외지인들에게 주현성(州縣城)에 다다랐음을 말해주는 경계 표시적 기능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주현성(州縣城) 석상이 본토의 ‘장승’과 기능이 유사함을 말해 주며, 다른 이유와 함께 ‘장승’이 제주도에 유입하여 삼주현성(三州縣城) 석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⁴⁴⁾

4) 문화사적 가치

돌하르방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제주의 자연석 현무암을 이용해 만들었다는 점에서 조형적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조형적 특징으로는 제주도 특유의 다공질 현무암으로 만들었으나 어느 지역 장승보다도 양식화한 일정한 형태가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또한 그것은 간결한 형태 요약을 통한 단순미와 다듬어지지 않은 투박함이 있다. 또한 제약을 받지 않아 형태가 다양하다. 현재 전하는 석상들은 감투를 쓰고 있고 두 손을 배 위에 살짝 엮는 등 비슷한 점이 많아 보이지만 삼주현성(三州縣城) 각 고을의 석상들의 모습과 크기는 모두 다르다.

둘째, 민속학적으로 돌하르방은 역사적 시련과 자연과의 투쟁에서 적응하고 때로는 그것을 극복하며 살아온 제주인의 진취적인 인간상을 대변해 주는 수호신으로 문화적 상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수호신적 기능, 주술적 기능면에서 생활문화 유산으로서 가치도 고려할 수 있다.

44) 김영돈, 『濟州·大靜·旌義 州縣城 石像』, 앞의 책, 42~43쪽.

그러나 돌하르방의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그 관리 및 보존에는 소홀하다. 현재 현존하는 돌하르방은 모두 47기 중 제주목의 2기는 국립민속박물관에 옮겨져 있다. 성읍에는 12기 모두 원 위치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나, 제주시와 대정의 돌하르방들은 대부분 다른 곳으로 옮겨져 있다. 그러면서 대도로변에 아무런 보호 시설 없이 세워져 있어 일부는 이미 훼손된 흔적이 있으며, 시멘트 등으로 간단히 보수한 것도 있어 보존대책이 시급하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원로들의 증언과 문헌 자료를 토대로 돌하르방의 위치를 역추적하는 작업을 통해 원래 위치를 찾아내 그곳에 표석이라도 남기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세계의 석상들과의 비교, 고찰을 통하여 돌하르방의 유래 및 형태, 기능, 기법 등 종합적인 연구 조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재질의 돌하르방 창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창조적 계승의 노력 역시 필요하다.

Ⅲ. 제주문화상징물의 문화콘텐츠화 방안

1. 제주문화상징물의 의미

2006년 7월 26일 문화관광부에서는 100대 민족문화상징을 발표하였다. 100대 민족문화상징이란, “우리 민족이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공간적·시간적 동질감을 바탕으로 형성되어 온 문화 중, 대표성을 가진 100가지 문화상징”을 말한다.

문화관광부가 발표한 민족문화상징은 전통과 현대를 아울러 우리 민족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민족상징, 강역 및 자연상징, 역사상징, 사회 및 생활상징, 신앙 및 사고상징, 언어 및 예술상징 등 6개 분야에서 선정

됐다. 이 중 순수 제주도 것으로는 ‘사회 및 생활상징’ 분야에 ‘잠녀(해녀)’, ‘돌하르방’, ‘돌담’이 선정됐다.⁴⁵⁾ ‘잠녀’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전통적 잠수문화이자 제주여인의 강인한 삶과 독특한 문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돌하르방’은 제주도를 상징하는 석조물이기 때문에, ‘돌담’은 삼다도 제주의 상징으로 현무암 돌담 자체가 빚어내는 경관의 아름다움 때문에 각각 선정됐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제주10대 문화상징물 선정·편찬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선정된 제주문화상징물에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상품화·산업화함으로써 ‘제주문화원형의 실체 찾기 및 정체성 제고, 문화의 시대 제주문화의 산업화 기반 마련, 제주문화의 홍보 및 세계화에 기여’하리라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제주 10대 문화상징물은 ‘한라산, 해녀, 제주어, 제주4·3, 돌문화, 제주굿, 제주초가, 갈옷, 굴, 오름’ 등이다. 이들 제주문화상징물은 제주사람들이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공간적·시간적 동질감을 바탕으로 형성해 온 문화 중 대표성을 가진 상징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토속적 원형질을 간직하고 있는 제주도 특유의 문화적 원형 상징물은 그 자체가 문화관광자원이면서 문화적 종다양성의 보고를 지켜낸다는 의미가 있다.

45) 강역 및 자연 상징으로 한라산이 배제되었다는 것은 민족문화상징의 지역적 배려가 미흡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강역을 한라에서 백두까지라 하고, 한라산의 자연(동·식물, 경관)적 가치 또한 묵과할 수 없는 것이라 할 때, 100대 민족문화상징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항목이었다. 따라서 제주문화 99상징, 제주10대문화상징의 첫머리에 ‘한라산’을 놓는 것은 당연한 처사이다.

2. 제주문화콘텐츠의 의의

콘텐츠는 내용이나 목차를 말한다. 문화콘텐츠·디지털콘텐츠·인문콘텐츠라는 용어에서의 콘텐츠는 단순한 내용물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대체로 ‘테크놀로지를 전제하거나 테크놀로지와 결합된 내용물’로 정의된다.⁴⁶⁾ 이처럼 콘텐츠가 미디어나 기술을 전제로 하는 내용물로 인식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디지털기술에만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 아날로그 콘텐츠도 가능하고 문화적인 소재를 기획하고 포장하여 상품화한 것도 좋은 콘텐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콘텐츠란 어떤 소재나 내용에 여러 가지의 문화적 공정을 통해 가치를 부여하거나 가치를 드높인 것”이라고 좀더 폭넓게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⁴⁷⁾ 여기에서의 논의도 이런 폭넓은 정의에 바탕을 둔다. 말하자면 문화콘텐츠는 창의력·상상력을 원천으로 문화적 요소가 체화되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상품정도로 인식해도 될 것이다.

문화가 문화산업과 ‘시장적 제휴’를 통해 그 문화적 가치를 제고시킬 수 없는 한계가 늘 노정되고 있다. 여기서 최대의 관심사는 문화산업과 관계를 맺는 문화의 산업적 가치로의 전환이다. 문화는 그 자체로서의 위상을 지닐 수 없고, 산업적 가치로 쉽게 탈바꿈할 수 있는 문화, 문화산업과 쉽게 ‘시장적 제휴’를 맺을 수 있는 문화, 이러한 문화가 예술적 가치를 경쟁적으로 점유하기 시작한다. 이는 문화의 가치가 붕괴되는 조짐이라고 할 수 있다.⁴⁸⁾

제주문화를 콘텐츠화하려면 먼저 제주문화원형에 대한 연구가 선행

46) 최연구, 『문화콘텐츠란 무엇인가』, 살림, 2006, 40~41쪽.

47) 최연구, 위의 책, 59~60쪽.

48) 고명철, 『갈날 위에 서다』, 실천문화사, 2005, 106쪽.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인문학적·고고학적 고증 및 역사적 자료 분석 등을 통해 문화적 가치 찾기 등의 작업이 수행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콘텐츠를 스토리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스토리텔링이란 어떠한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역사적·사회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상상력을 가미하여 이야기를 창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문화 원형을 활용하여 유형에 알맞은 소재를 선택하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것으로 미학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상품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방법의 선택이 모두 포함된다. 그리고 이것은 드라마 및 영화·애니메이션의 대본, 게임, 축제기획 등을 의미하며 그 내용과 표현 방법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⁴⁹⁾ 스토리텔링은 문화에 내재된 정신, 사회적 분위기 및 변화, 관련된 주요 역사 등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콘텐츠 및 콘텐츠스토리를 멀티미디어화하고 상품화하는 단계를 거쳐야 할 것이다. 제주문화콘텐츠 개발 단계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문화콘텐츠를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미비하고, 그 결과 제주문화 콘텐츠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상품화만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

제주문화상징물을 문화콘텐츠화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의 의미와 가치를 파악, 스토리텔링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스토리텔링은 생태의식을 반영한 것이라야 한다. 문화는 자연환경과 긴밀한 상관성 속에 놓여 있다. 특히 제주의 문화유산은 오랜 세월 동안 척박한 자연 환경과 역사적 환경을 극복하며 만들어낸 제주만의 것이다. 이는 바람, 외세, 재앙을 극복하고자 한 노력으로 나타난다. 돌담은 바람과 외세 침탈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면, 수호신이면서 주술적 성격을 갖고 있는 돌하르

49) 인문콘텐츠학회, 『문화콘텐츠입문』, 북코리아, 2006, 177쪽.

방은 생활 속에서 재앙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자연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문화의 산물이라면 제주사람들은 늘 자연과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살아왔다고 할 수 있다. 극복은 자연을 파괴하고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생해야 할 존재로 여기는 것에서 시작한다.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인간은 자연에 대한 문명의 우월성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생태 위기가 생겼다. 따라서 인간 중심주의 사고를 버리고 늘 인간과 자연이 상생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며, 이는 문화콘텐츠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제주문화상징물은 제주를 대표하는 브랜드로서 가치가 있다. 제주문화상징 선정물들은 모두 제주문화원형으로서 상징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앞으로 문화 예술적 콘텐츠로의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선정된 상징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현대문화 속에 살아 있는 것으로 재창조해야 할 것이다.

3. 제주문화콘텐츠의 활용방안

문화콘텐츠는 디지털 콘텐츠 중에서 문화자료를 원천으로 한 콘텐츠를 말하며, 문화산업의 아이টে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단계로까지 나아간 것을 의미한다.

돌문화를 대표하는 돌담, 정낭, 돌하르방의 디지털 콘텐츠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작업이다. 또한 문화콘텐츠에서의 스토리텔링은 문화원형의 역사·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장르 혹은 매체에 따라 상상력을 가미하여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 즉 문화원형의 가치를 발견하고 전통과 역사에 대한 의미를 스토리텔링을 통

하여 인류의 공유물로서 활용할 때 비로소 문화유산의 본래 의미를 후세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생태의식을 반영한 제주문화상징물의 스토리텔링은 교육용 에듀테인먼트는 물론 영화 및 애니메이션, 게임 제작, 다채로운 캐릭터 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행서적, 여행상품 소책자, 사진, 엽서, 그림, 관광안내소의 안내물, 관광안내사의 해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전달된다. 캐릭터는 문화콘텐츠에서 산업화와 연계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로서 개성 있고 매력적인 캐릭터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체험행사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주의 돌담을 흑룡만리(黑龍萬里)라 부른다. 중국의 만리장성을 황룡만리라 부르거니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제주도 만리갯담을 부르는 별칭이다.

척박한 자연환경을 극복하고자 한 제주사람들의 삶의 소산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신적인 의미는 물론 미학적인 가치까지 제공해 준다. 이처럼 돌담은 오랜 세월 동안 제주사람들의 정신과 생활의 구심점으로 자리 잡아 왔으나, 지금까지는 제주도내 관광자원의 범주에서는 소외되어 왔다. 따라서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운 관광자원으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으므로 이를 보존하고 제주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제주가 가진 또 다른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돌담의 콘텐츠화 방안으로 첫째, 보편적인 문화이면서 변별적인 문화인 제주의 돌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여전히 그것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드물다. 따라서 제주 돌담의 역사적 유래, 제작 방식, 종류 등 돌담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화보 형식의 인문집을 제작할 수 있다. 또한 돌담 사진 전시회 개최 및 우편엽서 제작은 제주 돌담의 홍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⁵⁰⁾

둘째, 지자체는 돌담의 보존 및 관광지를 조성하고 돌담 산책로를 개발하여 돌담을 적극적으로 관광자원화해야 한다. 제주의 돌담은 단순히 구역의 경계 표시가 아니다. 어느 곳에 어떻게 쌓느냐에 따라 돌담의 기능이 달라진다. 따라서 이러한 제주 돌담의 다양한 쓰임새를 정리하여 사진과 함께 안내책자를 발간하고, 아름다운 돌담길 걷기와 같은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돌담의 스토리텔링 작업이 필요하다. 돌담은 쌓는 장소 및 기능 등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돌담과 관련된 이야기도 많다. 즉 자연의 바람을 극복하고, 외세의 침탈을 막아내는 돌담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상상력을 가미하면 풍부한 이야기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및 게임, 교육용 에듀테인먼트 자료로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넷째,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축제와 행사는 문화예술의 다양한 소재와 현대사회의 생활문화가 집약적으로 녹아있는 인류의 유산이다. 축제와 행사의 스토리텔링이란 이야기나 창작소재를 지역 축제나 행사에 적합한 형태로 가공하는 작업을 의미하며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 제작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축제와 행사의 주제를 정한 후 관련 소재를 발굴하고 관광객으로 하여금 체험하게 함으로써 축제의 주최자와 관광객, 지역민이 모두 축제 주제와 관련된 스토리를 즐기는 과정을 연출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돌담과 관련한 다양한 체험 행사를 기획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돌담의 의미와 가치를 바탕으로 스토리가 있는 주제공원을 만들 수 있다. 즉 돌담길을 이용한 미로공원 같은 것이 그것이다.

50) 주강현, 『제주문화상징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문화상징의 의미와 활용방안 세미나(2008. 1. 9.)』 자료집, 24쪽.

정낭은 실용적인 대문이면서 주술적인 통행금지 기능을 한다. 정낭을 걸쳐 놓음으로써 마소는 물론 외부인, 심지어 도둑까지도 출입을 금지한다. 한반도 다른 지역에서 보이는 대문과는 다르기 때문에 제주에는 대문이 없다고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제주에는 대문이 없지만 도둑이 없다고 하여 그것을 미풍양속이라고까지 칭찬한다. 하지만 정낭 때문에 도둑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제주에는 집안 곳곳을 지켜주는 신이 있다고 믿는다. 이 신들의 내력을 말해 주는 것이 <문전본풀이>인데, 이 이야기에 따르면 어리석은 아버지는 대문으로 달아나다 정주목신이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마소나 외부인, 도둑이 감히 집안에 범접하지 못하는 것은 정낭에 깃든 신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정낭을 콘텐츠화 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하다. 첫째, <문전본풀이> 및 정낭을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 역시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애니메이션 및 게임의 기본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정낭을 소개한 대부분의 자료들은 그것이 제주의 독특한 대문이라는 점에만 초점을 맞춰 정낭이 집주인의 부재를 알리는 암묵적인 약속 체계라는 점과 도둑이 없는 제주의 미풍양속을 보여준다는 점만 강조해 왔다. 즉 정낭의 유래를 알 수 있는 이야기라든지 기능 및 의미는 간과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정낭이 담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찾고 이를 스토리텔링하여 다양하게 활용할 때 정낭에 담겨 있는 제주인의 의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한림읍 상명리에서 대문을 모두 철거하고 대문 대신 정낭을 설치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최근 관공서, 일반 주택, 밭의 입구에 정낭이 설치된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정낭을 건축 디자인으로만 사용한 것은 아닐 것이다. 사실 높은 담장과 대문이 있다고 해서 도둑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무인카메라를 설

치하고 대문은 물론 현관문까지 여러 개의 잠금 장치를 하는 것이 요즘의 세태이다. 하지만 높은 대문 대신 정낭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정낭을 디자인하여 신이 집을 지켜준다는 믿음을 갖는 것은 각박해진 현대 사회에서 인간을 신뢰하고 싶어하는 작은 소망 때문일 것이다.

둘째, 캐릭터 개발이다. 외부로부터 집을 지켜주는 정주목신을 캐릭터로 만들 수 있다. 물론 이는 <문전본풀이>의 내용을 알고 있거나, 혹은 최소한 정주목신이 어떤 신인지 알고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문화는 물론 다른 문화권의 문화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제주문화상징물들의 의미와 가치를 제고하고 이것들의 노출 빈도를 높여 관광객들에게는 독특한 제주문화를 안내하고, 제주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주목신과 정낭의 캐릭터 개발은 중요하다. 그리고 캐릭터 개발과 함께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홍보할 수 있는 작은 안내물을 부착하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정낭은 여러 기능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집주인의 부재를 표시하는 통신수단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낭을 조그맣게 축소시켜 사무실 책상 위에 올려놓거나 연구실 문 앞 등에 걸어 놓고서 주인의 부재를 표현하는 간결한 의사표현 수단으로 사용가능할 것이다. 즉 정낭의 기능 및 미학적 가치를 살린 하나의 관광상품이 될 것이다.

제주의 대표적 석상인 돌하르방은 이제 국내에서만만이 아니라 해외로도 진출하고 있다. 때문에 돌하르방의 가치와 의의를 전파하고, 제주 나아가 한국 고유의 민속 문화를 소재로 한 다양한 산업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돌하르방은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의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조형물로서 세워지거나 관광 상품화하는 돌

하르방은 전부 제주목의 양식을 본떠 만든 것이다. 심지어 성읍민속마을의 돌하르방도 제주목 양식을 본떠 만든 것이 있다. 따라서 제주목·정의현·대정현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돌하르방을 만들어야 조형물로서의 가치 및 관광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할 것이다.

돌하르방은 수호신적 기능과 함께 주술 종교적 기능이 있었다. 그러므로 돌하르방 제작에는 외적인 조형문화는 물론이고 내적인 측면에서 신성시했던 민간에서의 의식세계도 그 바탕에 담아낼 때 토산품도 생명력을 지니게 된다.

돌하르방의 문화콘텐츠화 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멀티미디어 제주민속관광대사전 지원 등 디지털 콘텐츠화 및 홍보물 제작에 지원해야 한다. 멀티미디어 제주민속관광대사전에는 돌하르방과 관련한 서적 및 사진, 동영상 등이 있으나 새로운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지 못함은 물론 동영상 및 애니메이션 자료는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애니메이션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돌하르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천이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한 이는 스토리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돌하르방에 관한 원천자료들을 파악하고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돌하르방이 외교 사절단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하지만 국적도 모르고 돌하르방의 유래라든지 역할이 무엇이었는데도 모른 채 그냥 공원 한편에 세워지기만 한다면 큰 의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돌하르방과 함께 안내판이 함께 세워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해외에 돌하르방에 얽힌 설화, 속담 등을 각국의 언어로 번역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한국 고유의 문화원형의 하나로서 인식시키는 방안 등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현무암의 특성상 조경의 목적이나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기능 등의 이유로 밀반출되는 사건이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석재 공급 및 보존 역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둘째, 돌하르방은 과거 성문을 지키던 수호신이었다. 지역 내 공공장소에 설치하고 국내외 자매결연 한 도시에도 돌하르방을 세움으로써 제주를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스토리텔링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돌하르방 소재의 예술작품, 돌하르방의 신소재 개발방안 등에 관한 전국 규모의 공모전을 개최하여 도민은 물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보존과 가치 계승에 힘써야 한다.

넷째, 스토리텔링을 활용하여 관광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또한 돌하르방의 지역적 특색 및 기능을 고려한 스토리텔링 및 이를 활용한 다양한 캐릭터 개발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그리고 캐릭터 개발을 통해 돌하르방 모양의 도장 등 다양한 관광 상품의 개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돌하르방의 브랜드 가치를 활용하여 T셔츠 및 팬시 제품 등 다양한 상품 개발을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흙 등을 이용한 돌하르방 만들기 체험 행사도 개최할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본고에서는 제주문화의 정체성을 밝혀 줄 많은 제주문화상징물 중에서 생활상징이라 할 수 있는 돌담, 정낭, 돌하르방을 선정하여 각각의 문화상징물의 의미와 가치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제주문화의 특수성을 밝힘으로써 이 문화원형을 바탕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문화산업이 주도하는 21세기에 제주문화를 세계화할 수 있는 방향을 미약하게나마 제시하였다.

제주문화상징은 제주를 대표하는 브랜드로서 가치가 있다. 제주문화상징 선정물들은 모두 제주문화원형으로서 상징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앞으로 문화 예술적 콘텐츠로의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선정된 상징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현대문화 속에 살아 있는 것으로 재창조해야 할 것이다.

제주문화를 콘텐츠화하려면 먼저 제주문화원형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인문학적·고고학적 고증 및 역사적 자료 분석 등을 통해 문화적 가치 찾기 등의 작업이 수행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콘텐츠를 스토리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스토리텔링은 문화에 내재된 정신, 사회적 분위기 및 변화, 관련된 주요 역사 등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콘텐츠 및 콘텐츠스토리를 멀티미디어화하고 상품화하는 단계를 거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주문화상징물의 스토리텔링은 생태의식을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제주문화유산은 오랜 세월 척박한 자연적·역사적 환경을 극복하며 만들어낸 제주만의 것이다. 자연 환경의 극복은 자연 환경을 정복과 파괴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상생해야 할 존재로 여기는 것에서 시작한다. 따라서 제주문화콘텐츠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생태의식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돌담, 정낭, 돌하르방 각각의 문화콘텐츠 활용방안은 교육용 에듀테인먼트, 디지털 콘텐츠화, 스토리텔링, 캐릭터 개발, 관광자원으로의 활용 등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문화가 시장적 제후를 통해 문화산업적 가치에 함몰되고 개발주의, 신자유주의를 비판 없이 용인하게 되면 문화가치는 파괴되고 말 것이

다. 제주의 발달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식량을 무기화하는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1차산업을 생명산업으로 존중하는 생태주의와 만날 때 가능하다.

제주의 문화상징물 모두가 인간과 자연의 행복한 조화, 공존을 모색할 때 존속될 수 있는 것들이며, 생태적 사고를 바탕으로 할 때 문화콘텐츠 개발과 적용도 증폭된 힘을 갖게 될 것이다.

제주문화 코드 모든 것이 문화산업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문화산업이 그 문화적 전제 즉 문화에 내재된 정신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문화전통이 현대적 삶에 체화되고 현대 문명과 상생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될 때 문화콘텐츠 산업은 그 긍정적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다.

참고 문헌

1. 논문 및 저서

- 고광민, 『제주의 돌문화』, 제주돌문화공원, 2006.
- 고명철, 『칼날 위에 서다』, 실천문학사, 2005
- 고시홍, 『돌담』, 『濟州學』 제2호 겨울, 제주학연구소, 세림, 1998.
- 김봉옥, 『제주통사』, 제주문화, 1987.
- 김석익, 『탐라기년』, 제주도 교육위원회, 1976.
- 김영돈, 『濟州·大靜·旌義 州縣城 石像』, 『한국문화인류학』 제5호, 한국문화인류학회, 1972.
- _____, 『돌하르방』, 『제주민의 삶과 문화』, 제주문화, 1993.
- _____, 『돌하르방』, 『제주성읍마을』, 대원사, 1999.
- _____, 『돌하르방』, 『제주도 제주사람』, 민속원, 2000.
- 김유정·손명철, 『제주의 민속문화② 제주의 무덤』, 국립민속박물관, 제주특별자치도, 2007.
- 김종석, 『제주도 전통사회의 돌문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김중앙, 『제주도 전통사회의 돌(石)문화-생활용구, 방어시설 및 사회적 기능체로서의 용도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淡水契編, 증보<耽羅誌>, 제주문화원, 2004.
- 북제주군문화공보실, 『내고장 傳統文化의 뿌리』, 1982.
- 송시태 외, 『제주의 민속문화④ 제주의 꽃자왈』, 국립민속박물관, 2007.
- 이문호, 『디지털 통신 효시로서의 정낭통신 시스템』, 『정보통신』 10호, 한국통신학회, 1993.
- 이원진, 『耽羅誌』
- 인문콘텐츠학회, 『문화콘텐츠입문』, 북코리아, 2006.
-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 최연구, 『문화콘텐츠란 무엇인가』, 살림, 2006.
- 허남춘, 『제주문화 연구의 성과와 과제』, 『탐라문화』 제31호, 2007.

허남춘 외, 『제주의 민속문화⑤ 제주의 음식문화』, 국립민속박물관, 2007.

현용준,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2002.

-----,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2003.

현용준·현승환, 『제주도 무가』,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96.

2. 기타자료

김유정, <돌담, 삶은 기록보다 앞선다>, 제민일보 2007. 4. 5.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이트 <http://www.unesco.or.kr>

일본국제관광진흥기구 사이트 <http://www.jnto.go.jp>

『제주돌담의 역사·문화적 고찰과 평가시스템 구축방안 세미나』 자료집.

『제주문화상징의 의미와 활용방안 세미나』 자료집.

KBS, 『역사기행』, 2007. 2. 25.

『W』, MBC, 2008. 4. 25.

Abstract

The value of symbolic figures for Jeju culture and
measures to make cultural contents

- focusing on the stone culture of Jeju -

Kang, Yoen-Sil*

The cultural heritage of Jeju made by overcoming barren natural and historical environment throughout the years is regionally unique. Therefore, the core of the argument for Jeju or identity of people in Jeju will be the very culture of Jeju.

Culture becomes property and competitiveness in the 21st century, so called 'the period of culture'. The culture of Jeju has infinite potential in this period.

Not only food, clothing and shelter but also even the symbol of faith is made of stone in Jeju. And so this stone culture can be infinite potential.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find essential meaning of cultural history and spiritual history of Jeju culture and to identify people in Jeju. Also, it aims to find the characteristics of Jeju culture based on the universality of Korean culture to seek for the use measures based on this cultural archetype, and to suggest a way to globalize Jeju culture in the 21st century when is led by the cultural industry.

The argument will be developed with 'stone culture' which is selected one of the ten cultural symbolic figures of Jeju among many symbolic figures of Jeju culture to find out the identity of Jeju culture.

* Graduate Cheju National University

Among them, the scope of this study will be limited to 'stone wall', 'Jeongnang', and 'Dolharubang'.

It is true that recent policies for cultural industry only focus on the industrialization while neglecting to find the cultural archetype and study cultural contents. Therefore, in-depth and systematic research and study on the archetype of Jeju culture needs to be preceded for resulting in substantial outcome in cultural contents business in Jeju. And understanding the meaning and value of cultural symbolic figures of Jeju and storytelling is important to turn them into cultural contents. Especially storytelling should reflect ecological consciousness which considers nature as an object of co-existence, not conquest.

Cultural contents mean contents originated from cultural materials and things could be used for items in the cultural industry. This study will suggest the meaning and value of 'stone wall', 'Jeongnang' and 'Dolharubang', and methods to make contents for individual cultural symbolic figures in edutainment for education, digital contents, storytelling, character development, and the use of tourism resources.

Key Words

symbolic figures for Jeju culture, stone wall, Jeongnang, Dolharubang, cultural contents

교신 : 강연실 690-80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남동 54-21번지 온산빌라 501호
(E-mail : banila0712@hanmail.net 전화 : 016-632-7509

최초 투고일 2008. 7. 31

최종 접수일 2008. 8. 19